

자동화재원 확충

중진공, 향후 5조 투자

중소기업의 자동화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촉진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 자동화 지원을 위한 재원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무 중진공 자동화지도실장은 "올해 중소기업 자동화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는 1조2천억원 수준이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자동화지원 재원은 1,044억원 뿐이어서 별도 재원조성을 통한 자동화 투자재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로 인해 정책자금지원이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실시했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성격의 금융자금을 조성, 자동화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자동화율은 45%선으로 일본의 80%나 미국의 60%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약5조원의 자동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영교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은 자동화 확산을 위해 "오는 97년까지 1,400개의 자동화 설비를 국산화 하도록 지원하고 업종특성에 적합한 자동화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활발

4월현재 100여사 전체 1,790개

올들어 대기업·중소기업들의 기술연구소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처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월별로는 가장 많은 34개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올들어 4월말까지 100곳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체 기업연구소의 수는 1,790개로 늘어났다.

전체 기업연구소를 규모별로 보면 1,191곳(66.5%)이 중소기업, 나머지 599곳이 대기업 연구소였으며 연구원의 학력분포는 학사 31,132명(68.3%), 석사 12,745명(27.9%), 박사 1,792명(3.9%)으로 조사됐다.

이중 연구원이 10명 미만인 연구소가 885곳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해 상당수가 연구원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 '산업기술국' 업무 본격화

산업디자인·포장 진흥시책 업무 추진

상공자원부가 올해부터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신설한 '산업기술국'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기술국'의 최대 역점 사업은 기술의 하부구조 확충사업을 추진키 위한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업무와 '산업기술 대학법'의 제정 등이다.

산업기술진흥과는 올해 1천4백50억원으로 늘어난 공업발전기금의 체계적 운용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산업디자인·포장 진흥 시책업무 등을 맡게되고, 산업기술협력과는 이미 설립된 한·일, 한·미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의 관리는 물론 기술도입과 산업기술 정보의 유통문제 등도 다루게 된다.

영업실무위원회 회의

제관업체, 최고위원 중심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영업실무위원회 제5차 정례회의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강원도 현남면 동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조합원사의 영업실무 최고위원과 실무자 1명을 비롯, 비회원사의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제관업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마련했다.

포장기술인협의회 야유회

포장인 우의 다져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김선창)가 지난달 15일 야유회를 갖고 포장기술인의 우의와 협력을 다졌다.

이날 야유회에는 협의회 회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우중에도 탁구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담소의 자리를 마련,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안산 유동기업 운동장 및 실내에서 벌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운동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포장인 스스로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소속한 회사들의 다양한 후원으로 협의회에 단결력과 우의를 보여줬다.



▲ 지난달 15일 유동기업에서 포장기술인협회의 आय회회가 열렸다.

비금속광물협회의, 자연보호캠페인

유리조합, 쓰레기수거·단합의 자리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의 비금속광물협회의는 지난달 15일 자연보호를 겸한 단합의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관악산 일대의 쓰레기 수거와 함께 노래자랑 등 장기자랑이 열려 평소 같고 닦은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등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단합을 결의했다.

이번 산악정화대회에는 유리조합 회원사 가운데 도자기 및 내화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성 등 5개사 포장협회 가입

포장업계 등록신청 계속 늘어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공성기업 등 5개업체의 협회 가입을 승인했다.

포장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협회가입을 신청한 5개사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는 등 올초 협회가 전 포장업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회원가입 신청이 느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협회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가입한 5개사는 대부분 연포장 가공업체들이며 포장산업 컨설팅 등 연구·분석을 하고 있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도 포함돼 있다.

포장협회에 가입한 5개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성기업

공성기업은 지난 74년에 설립돼 그라비아 인쇄용 롤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92년도 총 매출액이 20억원 규모이다.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공장과 같이 있으며, 경기도 안산공단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거래처로는 원지산업, 유화산업, 동원산업 등에 연간 26,400개의 동판을 납품하고 있다. 주요 생산설비는 부메랑 도금기, 자동현상기, 습식연마기, 흡착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이 있다.

대표로는 포장업계 경력 20년의 박복순씨가 맡고 있으며, 종업원은 52명이다.

▲ (주)대일산업

자본금 2억5천만원으로 지난 8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대일산업은 포장업계 경력 20년의 남정락씨가 대표.

그라비아인쇄용 롤러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총 매출액이 33억원 규모이다.

안산시 팔곡동에 본사와 제1공장을 두고, 안산시 성곡동에 제2공장,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생산현황을 보면 그라비아 인쇄용 롤러제판(단일품목) 36,000본이며, 주요설비로 전자동 제판설비, 동도금기, 전자조각기 등이 있다.

종업원은 48명이며, 올해를 재도약의 해로 다짐 예정.

▲ 일신공업사

그라비아 인쇄용 실린더를 생산하는 일신공업사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내수판매액이 22억8천만원이며, 종업원은 26명.

생산현황은 연간 동도금 17,784EA, 연마 17,884EA 등 다수이며, 동도금기, 크롬기, 전자소각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7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대표는 서순석씨가 맡고 있다.

▲ 청우화학

그라비아 잉크를 생산하고 있는 청우화학은 지난 81년 10월에 설립되어 92년도에 내수판매 10억7천2백만원, 수출 1천5백만원 등 모두 10억8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종업원이 11명이며, 대표는 포장업계의 중견 경영인 노환

석씨.

주요 생산설비는 다이노밀, 롤러, 용해로, 믹서기 등이 있으며, 부속설비로 지하탱크를 갖추고 그라비아 잉크를 연 42톤 생산하고 있다.

▲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포장업계의 컨설팅 및 각종 관련서적 제작, 외국의 관련서적 등을 보급하고 있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포장업계의 산증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김영호씨가 소장으로 있다.

서울 여의도 교원공제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전시회 참관,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등 국내외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포장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포장협회, 이달 29일부터 양일간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포장관련업계 공장장 및 생산부(과)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장협회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상환 국제경영연구원장의 '21세기의 도전(경쟁력 강화와 신바람)', 이용일 교류분석연구원장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와 함께 포장관련 과목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업계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게 될 이번 세미나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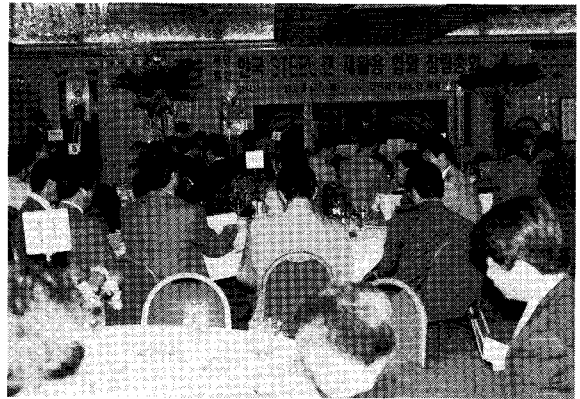
재활용협회 창립총회

제관·식품·소재회사 중심

스틸캔의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규칙을 맡아할 재활용협회의 창립총회가 지난달 2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있었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관회사·소재회사·식품업체 등 제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부문에 걸쳐 참여한 이번 총회에는 대표이사 및 재활용 관련 담당부서장 100여명이 참가했다.

재활용협회는 앞으로 공관의 회수는 물론 재활용에 대한 규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나설 방



▲ 사단법인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가 지난달 28일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침이다.

이철순 제관조합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이동춘 포항제철 판매담당 부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소재부문에서 동양석판을, 제관부문에선 중앙제관, 식품부문에선 롯데칠성음료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총회 후에는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 갈 상근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한편 제관조합은 협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운영으로 조합 고유의 영역을 지키고 협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포장업계 시찰단 업체 방문

국내 포장제품, 재료 조달 조사차

일본포장컨설턴트(주)(대표이사 石田 修) 주최로 진행됐던 '한국제 포장재료조달 시찰단'의 국내업체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일본포장컨설턴트사와 협력으로 국내의 포장제품·재료조달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시찰단의 업체방문을 통해 한일간 협력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단의 국내업체 방문은 지난 4월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포장기술연구소가 국내업체에 협조를 요청, 이루어진 것이다.

시찰단의 규모는 동양화학주식회사 등 동경지역 15명과 부도산업주식회사 등 대관지역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일본 시찰단은 유동기업(주) 안산공장, (주)삼양사